

HOPE

| 1 | general chapter 2025

차차카

M. 캐서린 (나자렛)



시토회의 카리스마를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2025 년 9 월, 수도회의 모든 장상들이
아씨시에 모여 CHApite general, general
CHApter, CApitulo

general 의 리듬에 맞춰 차차카의 ‘총체적 춤’ 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
준비로 몇 차례에 걸쳐 소식지를

통해 본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차차카에 대한 비전, 거기에서 어떤 소명과
도전을 발견하는 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 지 등 총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상들뿐만 아니라 수도회의 모든 회원들을 위한 춤인 총회에 여러분
각자가 더욱 긴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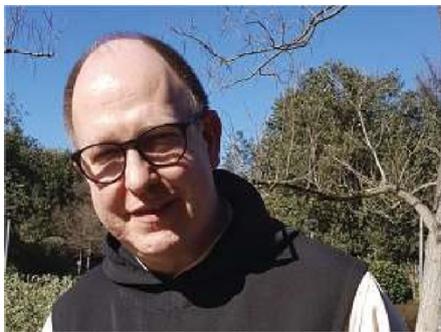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소식지는 첫 호이며 내년에는 세 차례 더
발행될 예정입니다. 춤의

제왕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1yzqsWxcBY> 당신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희망의 다리

D. 베르나르두스



칠레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비유적인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먼 거리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고

나니, 회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희망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본회는 “어떠한 문화 형태,
정치, 경제, 사회제도와도

결탁하지 않고”(회헌 70) “타 지방회의들과 교류를 갖는 지방회의들은 본
수도회의 공통유산에 대한

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 간의 대화를 일으킨다”(규정 81.C)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칠레에서 참가자들이 소규모로나마 경험한 것은 2025 년 총회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본회의 모든 회원들이 본회의 공통의 유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소식지는 여러분의 일상과 총회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형제자매들의 도전을 받아 오늘날의 세계에서 함께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의 희망은 총회가 장상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회 회원에게 유익하고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와와의 완전한 일치”(회헌 3.4)로 성장하는 데 참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2025 년 총회를 기도와 친교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작된

소식지의 의미입니다.

의제는 무엇입니까?

D. 엘리아 (갯세마니)



주제

두 가지 주요 의제가 몇 년 동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니다. 첫 번째는 모원자원
제도입니다.

수도원이 폐쇄 및 기타 이유로 인해 많은
수도원에 모원장이 없으며,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남자 수도원장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도원장이 이제 어느

수도원에서든 시찰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몇몇
여수도원장은 모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회는 곧 수도사와 수녀의 수가 갈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의

여수도원장의 역할과 수녀모원장의 가능성에 대한 주제는 의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취약한 공동체와 관한 것으로, 결연의 가능성에 대해 더 논의;
취약한 공동체와의 동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총회에 제출되며; 수도원 집회의 최소 필요 인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의제는 새로운 것들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더 이상 매일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오늘날 시토 수도회 생활에서 성체성사의 위치에 대한 연구와 식별; 수도원장, 참사, 본회의 다양한

위원회 등 직책의 구체적인 임기 문제; 현재 수도원의 지역분포와 지역 기능에 대한 재고; 마지막으로,

비성직자를 수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최근 교회법 개정을 우리 법에 통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 등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의제 중 일부에 대해 총회는 공동체들에게서 그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총회 전에

공동체들이 미사의 경험에 대한 설문지를 받을 것이고, 총회 중에는 몇몇 취약한 공동체들의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프라텔리 투티」를 시작점으로 본회

전체가 공동체들과 지방들의 문화 간 차원에 대한 성찰과 대화를 하게됩니다.

또한 총회의 개회 및 폐회 미사, 총장 개회연설, 그리고 아마도 다른 강의 등 특정 행사의 방송 또는

녹화를 통해서 모든 이가 더 알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총회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상들을 위한

사전 준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첫날에는 신규 및 기존 장상들에게
총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서기와 통역자들의 다양한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위원회가 아씨시에서 함께 지내는 삼주 동안의 영적
영역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총회 주최측에 요청을 한 바, 총회의 시작과 중간부에 하루의
일부를 일종의 피정 시간으로

할애하여 영적 강화, 고찰과 나눔을 위한 그룹모임,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총회장에서의 세션과 분과 위원회의 회의도 기도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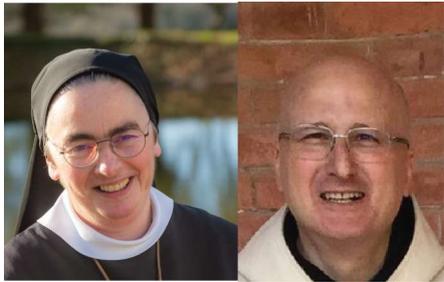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2025 년
희년을 맞아 모든 교회와
일치하며 “희망의 표징 아래
오늘날

세상에서의 시토 카리스마”에

대해 본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화, 식별, 기도함으로써 총회에

기여하도록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매일 성체성사에 관한 설문지



D. 로리스 (프라토키에) 와 M. 베네딕테 (에슈낙)

매일 성체성사 주제와 관련하여 7 월 초에 동 로리스 (프라토키에) 와 베네딕테 원장

(에슈낙)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수도회의 모든 공동체에 발송하였으니 9 월 30 일까지 총장관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가 될 여러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카리스마의 아름다움

총회의 주제를 희망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M. 죠반나 (마투툼)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본질적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시토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생명의 징조를 축소하고 간과합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는 성장을 강조하고 희망을 강화하며 생명을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희망의 징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총회에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카리스마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란?

Sr. 카타리나 (깎보)



나에게 희망은 내 마음과 예수님과의 만남 사이를 잇는 팽팽한 밧줄입니다. 저는 그 밧줄이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총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일상과 가난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나에게 희망이란?

Br. 마누엘 (미라플로레스)



나는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를 운명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화되더라도 “모든 것이 잘 끝날 것” (노리치의 줄리엔) 이라는

것입니다. 총회가 다양성 속에서 생동적인 참여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회를 어떻게 경험하나요?

동 알베릭 (쉬에르모니코그)

신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르드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제 총회

경험이라면 단연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회의를 진행했던 루르드의

피라미드형 강당입니다. 여기에서는 서로의 등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장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그 경험은 제 기억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쉽게도 그 장소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험은, 비록 총회장에서 서로에 대한 시야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서 까지도,

우리에게 총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본다는 것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며,

모든 서류 작업과 화면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매번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하느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을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총회 준비하기



Sr. 마리루시아 (길보)

총회를 준비하는 것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계획 과정입니다. 업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회의인 만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2022 년 총회의 경험을
감사한 마음으로

회상합니다. 바쁜 나날들 속에서도 본회의 품에 안겨있는 기쁨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 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칠레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공동선에 대한 소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에 귀를 기울이려는 열망에 공감하였습니다. 2025 년 총회가 애덕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예언적

정신이 되살아나는 영적인 경청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sr. 마리루시아
(길보)

총회를 준비하는 것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계획 과정입니다.
업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회의인 만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2022 년 총회의 경험을
감사한 마음으로

회상합니다. 바쁜 나날들 속에서도 본회의 품에 안겨있는 기쁨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 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칠레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공동선에 대한 소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에 귀를 기울이려는 열망에 공감하였습니다. 2025 년 총회가 애덕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예언적

정신이 되살아나는 영적인 경청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 위의 기도

선하신 하느님,

두 사람 이상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당신은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본회 총회가 일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우리 공동체의 수천 명의
수도자들, 수녀들이 하나가
되는 곳,

이 행사에서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러 옵니다.

일 년 후 아씨시 여행을 위해
일정을 비워두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지금부터 집중적인 준비기간에 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총장과 그의 자문회를 축복하시고, 총회를 주재하는 조정위원회를
축복하소서.

이 모임에 기도하며 희망을 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소서.

당신을 위해 서로 더불어 사는 기쁨으로 시토회 카리스마에 충실한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스개

수도원장과 수녀원장이 만났습니다.

수녀원장이 수도원장에게 묻습니다. “총회에 대해 이미 생각해 보셨나요?”

수도원장이 대답합니다. “네, 이미 생각해 봤습니다.”

수녀원장이 묻습니다. “그럼 중앙위원회 보고서를 이미 읽어보셨군요?”

수도원장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수녀원장이 묻습니다. “그럼 이미 공동체 보고서나 지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군요?”

수도원장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녀원장이 묻습니다. “그럼 형제들과 특정 의제에 대해 이미 논의를 해 보았군요?”

수도원장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녀원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총회를 위해 무엇을 이미 했나요?”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나는 총회에 대해 이미 생각을 해 봤습니다.”



희망에게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입니다.

현실이 지금 모습대로인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현실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용기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들의 삶은 끝없는 길, 절망적인 미로입니다,

신을 구하기 전에 전에 재물을 구하는 자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희망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희망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보통 반쯤 채워진 잔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낙관주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낙관주의가 아닌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고 희망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The Central Commission, Chile 2024

